

# 화재·폭발·누출 사고!

사업주의 무관심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 
언제,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



## 최근 재해사례

2012. 6. 18.



경기도 화성소재 점착제 제조공장에서  
화학물질 제조 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 
유증기가 폭발, 4명 사망, 9명 부상

2012. 9. 27.



구미소재 화학제품공장에서 불산원액을  
탱크로리에서 반응기로 이송 작업 중 불산  
원액누출, 5명 사망, 18명 부상,  
인근 지역 오염

## 폭발·화재 사고사례

### 빈 드럼 절단 작업 중 폭발



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을 난로로 사용  
하기 위해 산소 용접기로 절단 작업 중  
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

### 집진기 청소 중 폭발



작업자가 빗자루로 집진기(먼지를 흡입  
하는 장치) 내부를 청소 하던 중 정전기에  
의한 스파크로 인해 집진기가 폭발

### 자동차 도장부스 폭발



도장부스의 국소배기장치를 가동시키지  
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작업 중  
신너 등 유증기가 정전기 · 전기설비의  
스파크 등에 점화되어 폭발

### 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폭발



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 및 드릴  
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탱크 내부로  
날려 탱크 내 유증기 폭발

# 폭발·화재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!

위험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·화재 발생



폭발·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물과 점화원을 제거해야 합니다

- 실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창문을 열거나 강제 송풍 등 환기를 하여 유증기 등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여야 합니다.
-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
  -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, 비방폭형 전기기기(손전등, 전동공구 등)의 사용을 금지하고,
  - 제전화, 제전복 착용으로 인체의 정전기를 없애고,
  - 접지클램프 사용 등 접지조치로 설비의 정전기도 제거해야 합니다.
- 배관이나 드럼통 등 용접작업 시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변에 불꽃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